

주간 경제지표 리포트 26.08.12

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지난주는 잠잠했던 물가 경계심이 유가 급등을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든 한 주다. 국채금리는 미국·유럽·일본에서 동시에 올랐고, 낮은 곳에 머물던 시장 공포지수(VIX)도 오랜만에 반등했다.

지난주 한눈에

가장 큰 사건은 국제유가(WTI)다. 8월 11일 기준 배럴당 82.30 달러로 하루 만에 6.8%, 최근 닷새로는 9.5% 뛰었다. 유가가 오르면 생산비와 기름값 부담이 함께 커져 물가 압력으로 번질 수 있다. 이와 맞물려 미국 10년물-2년물 금리차는 0.47%포인트로 최근 20거래일 새 9.4bp 벌어졌고 유럽도 같은 기간 5.4bp 확대됐다.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뛰는 이런 '스티프닝'은 시장이 앞으로의 물가·성장에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.

고용 지표는 엇갈렸다. 미국 서비스업 PMI(기업 체감경기 서베이)는 54.6으로 예상(53.6)을 웃돌았지만 ISM 서비스업 PMI는 54.1로 예상(54.5)에 못 미쳤고, 민간고용(ADP)도 예상(7만 명)을 크게 밑도는 4만 4천 명에 그쳤다. 다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4주 평균은 19만 8,750건으로 20만 건 아래를 유지해 해고가 급증하는 신호는 아직 없다.

주식시장은 아직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. S&P500과 독일 DAX, 유럽 STOXX는 모두 1년 기준 상위권(각각 99.6%, 100%, 100%)에서 거래 중이다. 다만 VIX가 하루 새 3.8% 오르며 낮은 구간(1년 기준 하위 15%)에서 처음 반등한 점은 안일했던 시장 분위기에 작은 균열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. 자금 흐름도 비슷하다. 주식형 펀드에는 계속 돈이 들어왔지만(유입비중 50.2%), 채권형 펀드는 순유출 우위였다.

이번 주 꼭 볼 것

최대 분수령은 8월 12일 미국 소비자물가(CPI)다. 시장은 3.5%에서 3.4%로 소폭 둔화를 예상하지만, 이 수치는 유가 급등 이전 상황을 담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. 유가발 압력은 다음 달 지표에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. 8월 13일 생산자물가(PPI)는 그 압력이 도매물가에 얼마나 빨리 옮겨붙는지 보여줄 첫 단서다. 연방기금 선물시장은 이미 9월 회의 금리 인상 확률을 60%, 12월은 83%까지 반영하고 있어 시장의 초점은 '인하'가 아니라 '추가 인상 여부'에 가 있다. CPI·PPI가 예상보다 높으면 이 인상 기대가 더 굳어지며 금리·달러에 추가 압력을 줄 수 있다. 8월 14일 소매판매·소비심리는 고용 둔화 속에서도 소비자 지갑이 계속 열리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.

지난주 발표 지표 리뷰

날짜	국가	지표	예상	이전	실제	단위	분석
08/05	미국	서비스업 PMI	53.6	53.6	54.6	p	미국 서비스업 PMI 54.6 은 예상(53.6) 상회로 소프트웨어 강세를 재확인했다.
08/05	미국	종합 PMI	53.6	53.6	54.5	p	종합 PMI 54.5 도 예상(53.6)을 웃돌아 서비스업 서프라이즈와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.
08/05	미국	서비스업 PMI(ISM)	54.5	54.0	54.1	p	ISM 서비스업 PMI 54.1 은 예상(54.5)에 못 미쳐 마켓 서베이 상회와 엇갈렸다.
08/05	프랑스	종합 PMI	49.6	49.6	49.4	p	프랑스 종합 PMI 49.4 는 예상(49.6)을 밑돌며 위축 국면을 이어갔다.
08/05	프랑스	서비스업 PMI	49.8	49.8	49.6	p	프랑스 서비스업 PMI 49.6 도 예상(49.8) 하회로 위축권에 머물렀다.
08/05	독일	서비스업 PMI	49.6	49.6	49.8	p	독일 서비스업 PMI 49.8 은 예상(49.6)을 웃돌았으나 50 선 하회는 유지됐다.
08/05	유로존	생산자물가(PPI)	—	—	-0.3	%	유로존 6 월 생산자물가지수, 겉으로는 둔화됐지만 속을 보면 압력이 여전히 있다 [심층]
08/05	중국	서비스업 PMI(Caixin)	—	54.1	50.4	p	중국의 7 월 국가통계국(NBS)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제조업 49.2, 비제조업 49.0 으로 두 지표 모두 6 월(각각 50.3, 50.2)의 확장 국면을 벗어나 위축 구간으로 넘어갔다. 이번 달의 특징은 헤드라인 숫자와 그 안의 수요·가격 흐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이다. 6 월까지는 헤드라인이 좋아 보여도 신규주문이나 가격 흐름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엇갈림이 있었는데, 이번에는 그 엇갈림이 사라졌다. [심층]
08/05	일본	종합 PMI	—	53.1	52.7	p	일본 종합 PMI 는 컨센서스 없이 52.7 로 확장 국면을 유지했다.
08/05	일본	서비스업 PMI	—	51.9	51.2	p	일본 서비스업 PMI 도 컨센서스 없이 51.2 로 확장권을 지켰다.
08/05	일본	임금	—	—	3.4	%	일본 6 월 매월근로통계(후생노동성)에서 명목 현금급여총액은 전년동월비 3.4%로 전월보다 소폭 가속했고 실질임금도 플러스를 유지했지만, 6 월은 여름 상여금이 크게 반영되는 달인 만큼 이 가속을 곧바로 임금 상승 흐름의 강화로 읽기는 이르다. 표본 편차를 제거한 공통사업소 기준으로 보면 기초 임금인 소정내급여는 3.0% 안팎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아, 임금-물가 선순환이 유지되고는 있으나 새롭게 가속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. [심층]
08/05	영국	종합 PMI	52.1	52.1	52.2	p	영국 종합 PMI 52.2 는 예상(52.1)을 소폭 웃돌아 확장세가 유지됐다.
08/06	미국	신규 실업수당청구	202.0	197.0	199.0	천명	8 월 1 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9 만 9 천 건으로 전주 수평치보다 1 천 건 늘었지만, 추세를 보여주는 4 주 이동평균은 19 만 8,750 건으로 20 만 건 아래까지 내려오며 4,500 건 줄었다. 해고발 노동시장은 여전히 잔잔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, 인플레이션 우려가 우위에 있는 현재 시장 국면에서는 이 잔잔함이 위험자산에는 오히려 약한 악재 쪽으로 작용한다. [심층]
08/06	미국	생산성	—	—	1.4	%	2026 년 2 분기 미국 생산성·단위노동비용 잠정치치를 보면, 노동비용만 놓고 판단할 때는 추가 긴축을 정당화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. 다만 임금 상승세 자체는 가속하고 있어 방향은 여전히 위쪽을 향하고 있고, 물가 상승분 중 노동비용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어 그 원인이 이윤인지 다른 비용 요인인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상태다. [심층]
08/06	독일	내구재 주문	0.3	1.9	3.1	%	독일 내구재 주문 3.1%는 예상(0.3%)을 크게 상회해 제조업 수요 회복 신호를 냈다.

날짜	국가	지표	예상	이전	실제	단위	분석
08/06	유로존	소매판매	—	—	-0.3	%	유로존 6 월 소매판매량은 전월대비 마이너스 0.3 퍼센트로 집계됐다. 다만 상반기 내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타나는 톱니 패턴이 이어지고 있어, 이번 한 달의 마이너스만으로 소비 둔화가 시작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. 반년 단위로 이어 붙여 보면 유로존 상품 소비는 사실상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에 가깝다. [심층]
08/06	한국	경상수지	—	—	49.73	bn\$	2026 년 6 월 경상수지는 497.3 억달러 흑자로 5 월 (386.1 억달러) 보다 확대되고 전년동월 (139.7 억달러) 의 세 배를 넘어섰다. 수입이 줄어서 흑자가 난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만들어진 확장형 흑자라는 점이 핵심이다. 다만 같은 자료 안에 원유 도입단가가 70% 넘게 뛰었다는 물가 측 부담도 함께 실려 있어서, 이번 지표를 성장에는 호재로 읽되 물가에는 중립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재료로 읽는 것이 맞다.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국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표는 금리를 내릴 근거로 쓸 수 있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다. [심층]
08/06	영국	종합 PMI	—	48.4	51.6	p	영국 종합 PMI 확정치 51.6 은 컨센서스 없이 발표돼 앞선 속보치 (52.2) 보다 낮았다.
08/07	미국	고용보고서	80.0	57.0	-23.0	천명	7 월 미국 비농업고용은 2 만 3 천명 감소했지만 이 수치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로 보기 어렵다. 더 무거운 신호는 5 월과 6 월치가 합쳐서 10 만 3 천명이나 하향 조정됐고, 최근 석 달간 월평균 증가폭이 14 만 2 천명에서 7 만 7 천명, 다시 2 만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. 같은 달 실업률이 4.2%에서 4.1%로 내려갔지만 이는 노동시장이 좋아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구직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아예 떠난 사람이 늘어난 결과에 가깝다. 임금 상승률과 노동수요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논거는 다소 약해졌지만,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가 3.3%로 여전히 높은 만큼 이번 지표 하나로 통화정책 방향을 단정하기는 이르다. [심층]
08/07	미국	임금	3.5	3.5	3.2	%	미국 임금상승률 3.2%는 예상 (3.5%) 을 하회해 임금발 인플레이 압력이 완화됐다.
08/07	미국	실업률	4.2	4.2	4.1	%	미국 실업률 4.1%는 예상 (4.2%) 보다 낮아 ADP·NFP 부진과 엇갈리는 견조함을 보였다.
08/07	독일	산업생산	0.1	0.9	0.2	%	독일 산업생산 0.2%는 예상 (0.1%) 을 소폭 웃돌아 완만한 개선을 보였다.
08/07	중국	무역·수출입	107.0	125.62	112.5	십억\$	중국 수출입 1125 억달러는 예상 (1070 억달러) 을 상회해 대외수요 회복을 확인했다.
08/07	일본	가계지출 (가계조사)	—	—	-3.3	%	일본 2 인 이상 가구 소비지출 (가계조사) 이 6 월 실질 기준 전년동월비 -3.3%를 기록해 7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. 그동안은 명목이 플러스를 유지한 채 물가만 실질을 깎아먹는 구도였는데, 6 월에는 명목도 -1.5%로 전월 +1.3%에서 꺾이면서 물가에 의한 잠식 위에 지출 금액 자체의 감소까지 겹쳤다. 상여 (보너스) 가 지급되는 달임에도 소득 개선이 지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,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의 근거로 삼아온 임금-물가-소비 선순환 가운데 소비 부분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. 다만 이번 결과를 근거로 소비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. 계절조정 전월대비로 보면 6 월은 -6.4%로 급락했지만, 이는 전월 (+3.7%) 급증 이후의 되돌림 성격이 크다. 실제로 전년동월비 실 [심층]
08/07	영국	주택가격	0.1	0.2	0.0	%	영국 주택가격 0.0%는 예상 (0.1%) 에 못 미쳐 보합에 그쳤다.

날짜	국가	지표	예상	이전	실제	단위	분석
08/09	중국	소비자물가(CPI)	0.8	1.0	0.5	%	7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전년동월비 0.5% 상승에 그쳐 6월의 1.0%보다 낮아지며 저물가 국면이 이어졌다. 다만 하락을 이끈 것은 식품과 에너지 쪽이고, 이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0.9%, 전월비로도 0.3% 올라 오히려 상방을 보였다. 물가 레벨이 낮아진 것은 분명하지만, 이를 곧바로 '수요가 무너지고 있다'는 신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. [심층]
08/09	중국	생산자물가(PPI)	3.8	4.1	3.5	%	중국의 7월 생산자물가지수(PPI)는 전년동월대비로는 여전히 플러스 영역이지만 전월대비로는 하락폭이 커지면서 레벨과 모멘텀이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. 상승을 떠받치는 것은 사실상 원자재·에너지 등 생산재 한 채널뿐이고, 소비재 쪽인 생활재는 오히려 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어서 중국 경제 내부적으로는 상류(원자재·중간재)와 하류(소비재) 사이의 온도차가 지난달보다 더 뜨거워졌다. [심층]
08/09	일본	경상수지	1512.0	3968.3	-92.3	십억엔	일본 경상수지는 예상(1 조 5120 억엔 흑자)과 달리 923 억엔 적자로 전환돼 격차가 컸다.

다음주 발표 예정

날짜	국가	지표	예상	이전	단위	관전포인트
08/12	미국	소비자물가(CPI)	3.4	3.5	%	컨센서스는 3.5%→3.4% 둔화를 예상하나 WTI 급등 직전 시점 수치라, 오일발 재가속은 다음달 지표로 이연될 가능성이 크다.
08/12	독일	소비자물가(CPI)	2.8	2.8	%	예상·이전 모두 2.8%로 정체, ECB 매파적 중립 기조를 흔들 서프라이즈 여지는 낮다.
08/12	일본	생산자물가(PPI)	0.6	0.4	%	이전 0.4%에서 0.6%로 가속 예상, 다카타 위원 매파 반대의견의 근거인 수입발 인플레이 압력을 뒷받침할지 주목.
08/13	미국	생산자물가(PPI)	—	198.2	p	예상치 없이 이전 198.2p 만 제시, WTI 급등이 도매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는지 확인하는 지표.
08/13	미국	신규 실업수당청구	202.0	199.0	천명	예상 20.2 만 건은 이전 19.9 만 건보다 소폭 증가, ADP·NFP 미스 이후 청구건수의 추세적 상승 여부가 핵심.
08/13	영국	산업생산	-0.2	0.1	%	예상 -0.2%로 이전 +0.1%에서 반전, 영국 산업생산 모멘텀 둔화가 이어지는지 확인한다.
08/13	영국	GDP	0.0	0.1	%	예상 0.0%로 사실상 정체, 이전 +0.1%에서 영국 성장 모멘텀이 더 약해졌는지가 관전 포인트.
08/14	미국	경기·소비심리	54.5	55.2	p	예상 54.5 는 이전 55.2 보다 소폭 하락, 서비스 PMI 서프라이즈와 대비되는 소비심리 냉각이 이어지는지 본다.
08/14	미국	소매판매	0.1	0.2	%	예상 +0.1%는 이전 +0.2%보다 둔화, ADP 고용 미스 이후 소비 지출 저항력을 가늠하는 지표.
08/14	프랑스	소비자물가(CPI)	0.6	0.6	%	예상·이전 모두 +0.6%로 변화 없음, 프랑스계 인플레이 서프라이즈 리스크는 낮다.
08/14	유로존	GDP	1.0	1.0	%	예상 1.0%로 이전과 동일, 유로존 성장이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확인한다.
08/14	유로존	무역·수출입	—	-5.0	십억€	예상치 없이 이전 -50 억€ 적자만 제시,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 확대됐는지가 관건.
08/15	한국	무역·수출입	—	26.5	%	예상치 없이 이전 +26.5% 증 가만 제시, 수출 모멘텀이 BOK 매파 전환 속에서도 유지되는지 본다.
08/16	일본	GDP	0.5	0.3	%	예상 +0.5%는 이전 +0.3%보다 가속, BOJ 매파 전망(하반기 CPI 2% 상회)을 뒷받침할 성장 지표.
08/16	영국	주택가격	—	-1.0	%	예상치 없이 이전 -1.0%만 제시, 영국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지가 관전 포인트.
08/17	중국	고정자산투자	-6.0	-5.7	%	예상 -6.0%는 이전 -5.7%보다 감소폭 확대, 고정자산투자 위축이 심화되는지 확인한다.
08/17	중국	실업률	—	5.0	%	예상치 없이 이전 5.0%만 제시, 실업률이 안정권을 유지하는지가 관건.
08/17	중국	소매판매	1.6	1.0	%	예상 +1.6%는 이전 +1.0%보다 개선, 소비 회복 모멘텀이 실제 수치로 뒷받침되는지 본다.
08/17	중국	산업생산	4.8	5.3	%	예상 +4.8%는 이전 +5.3%보다 둔화, 산업생산 감속이 소매판매 개선과 엇갈리는지 주목.
08/17	일본	서비스물가(SPP)	—	-1.4	%	예상치 없이 이전 -1.4%만 제시, 서비스물가 디플레이 완화가 BOJ 매파 근거를 더할지가 관건.
08/18	미국	수출입물가	—	7.1	%	예상치 없이 이전 +7.1%만 제시, WTI 급등이 수입물가에 얼마나 전가됐는지가 관건.
08/18	미국	산업생산	0.3	0.1	%	예상 +0.3%는 이전 +0.1%보다 가속, 산업생산 회복이 매파적 정책오류 프레임에 반박 재료가 될지 본다.
08/18	미국	주택지표	1.34	1.427	백만호	예상 134 만 호는 이전 142.7 만 호보다 감소, US10Y 4.71% 고금리가 주택시장에 주는 부담을 확인한다.
08/18	독일	경기·소비심리	—	26.3		확률가중: EUR/USD 약보합~소폭 상방 편향(+0.05% 가중), Bund_10Y 중립 · 관전포인트: EUR/USD 1.0850(상단)/1.0750(하단), Bund 10Y 2.35% [시나리오]
08/18	일본	내구재 주문	—	-1.9	%	예상치 없이 이전 -1.9%만 제시, 일본 설비투자 모멘텀 회복 여부가 관건.
08/18	영국	임금	—	2.9	%	예상치 없이 이전 +2.9%만 제시, 임금 상승세가 BOE 매파 경계를 자극할 수준인지 본다.

날짜	국가	지표	예상	이전	단위	관련포인트
08/18	영국	신규 실업수당청구	—	6.7	천명	예상치 없이 이전 +6.7 천 건만 제시, 영국 고용 냉각 속도가 가속되는지 확인한다.
08/18	영국	고용보고서	—	-4.0		예상치 없이 이전 -4.0 만 제시, 영국 고용 감소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관련 포인트.
08/18	영국	실업률	—	4.9	%	예상치 없이 이전 4.9%만 제시, 실업률 상승이 영국 고용 냉각 신호를 확인시킬지 본다.
08/19	일본	무역·수출입	—	-406.9	십억엔	예상치 없이 이전 -406.9 억 엔 적자만 제시, 엔저·유가 급등이 무역적자를 더 키웠는지가 관건.
08/19	영국	소비자물가(CPI)	—	2.6	%	예상치 없이 이전 2.6%만 제시, 영국 CPI 흐름이 BOE 정책 경로에 미칠 영향이 관건.

자료: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조재운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자료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,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